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시사프리 4면

강북구의회,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중학교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

서승목 · 이용균 · 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달 29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

의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부지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1,011㎡를 확보하고 그 중 1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나, 현재 교육당국의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이라는 반대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해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당국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의 하나로써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해당지역 출신의 서승목 행정보건위원장과 이용균, 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서승목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 설명했다.

유영일 기자